古新羅時代 漆器 彩畵에 나타난 高句麗의 영향

秦 弘 燮

一

一九七三年에 發掘된 慶州 第一五五號墳에서 金製裝身具를 비롯한 적지않은 副葬品이 發見되어 世人의 注目을 끌었던 바 그 中에서도 古新羅 畵蹟의 出現은 한층 注目되는 바 있었다。즉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二枚의 障泥와 二枚의 冠帽 附屬品 그리고 몇 개의 漆器에 그려진 그림들은 일찌기 金冠塚·金鈴塚 등에서 漆器 破片이 發見되었지만 이보다 훨씬 良好한 狀態로 남아 있었고、榮州 順興에서 古墳 壁畵가 發見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多樣하였던 것이다。金冠塚·金鈴塚의 漆器는 크게 損傷을 입어 器形의 復原은 不可能하고 따라서 表面에 그린 漆畵는 간신히 연꽃한 송이를 관찰할 수 있을 뿐 모두 筆線을 짐작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또 榮州 順興의 壁畵는 羨道 천장의 大蓮花文이 비교적 狀態가 良好하고 門扉의 人物像은 下半部에서 筆線을 볼 수 있을 뿐 上半部는 不分明하다。이러한 零星한 古新羅의 畵蹟에 새로이 發見된 畵蹟이、비록 片畵에 지나지 못하고 滿足한 狀態가 아니라 할지라도、새로운 畵蹟으로서 添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貴重하다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이들 畵蹟 가운데서 障泥에 그린 天馬圖와 冠帽 附屬品에 그린 騎馬人物圖·瑞鳥圖 등을 除外하고 同時에 發見된 數點의 漆器에 그린 彩畵에 관해서 이 彩畵에 나타난 高句麗 繪畵의 영향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二

慶州 第一五五號墳에서 發見된 一連의 漆器 中에 鳥形杯 三個가 있다。이 鳥形杯들은 발이 있었는지는 不明이나 머리와 부리 그리고 꼬리까지 寫實的으로 表現하였으며 등을 파서 잔을 만들었다。그 中 하나는 몸의 거의 中央에서 縱으로 크게 龜裂이 있을 뿐 가장 完全한 형태로 남아 있고 다른 하나는 頭部를 잃고 있으며 또 하나 가장 많은 損傷을 입은 것은 果然 이것을 前二者와 같은 鳥形杯로 보아야 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損傷을 입었다。그 理由로는 表面의 그림이 前二者와 全혀 다르고 兩쪽 끝이 유난히 들려서 전체 형태가 前二者와 다른 점을 들 수 있으나 편의상 鳥形杯로 分類하여 둔다。

이들 鳥形杯의 表面에는 朱色과 黃色으로 羽毛를 그렸는데 머리에는 눈과 부리 그리고 뒤통수에 털을 굵은 線으로 그리고 兩側面에는 가슴가까이에 굵은 線으로 날개를 그리고 그 옆에 半圓과 點으로 가는 털을、그 옆으로는 굵은 雙線을 꼬리 부근까지 그어서 깃을 나타내고 있다。이 날개 밑 즉 배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流雲文을 드문드문 그려 가슴까지 이르고 있다。가장 損傷을 입은 것의 側面에는 새가 한 마리 그려 있다。

이러한 그림 가운데서 注目되는 것은 腹部에 그린 流雲文과 새의 그림이다。이 流雲文은 (圖 一) 마치 가래와 같은 형태로서 짧은 자루가 있고 五枝가 달려 있다。이 流雲文은 이 하나만 따로 떼어 놓으면 雲文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지만 이와 類似한 형태는 같은 古墳에서 發見된 障泥에서도 볼 수 있다。즉 中央의 天馬圖를 가운데 두고 그 四隅에 그려진 雲文이 그것이다。(圖 二) 이 雲文은 끝이 갈라진 자루에 해당하는 곳에서 兩側으로 曲線을 그리며 굵은 두 가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空間에 굵게 橫으로 줄을 긋고 여기서 다시 밖으로 가는 黑線이 있다。兩者가 形態上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모두 雲文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鳥形杯의 雲文과 類似한 紋樣을 金鈴塚에서 發見된 漆器 彩畵에서 (圖 三) 볼 수 있으며 ① 天馬圖 四隅의 雲文과 類似하게 表現한 紋樣을 같은 金鈴塚에서 發見된 漆器彩畵에서 (圖 四) 볼 수 있다。② 그러나 이 두 紋樣이 곧 雲文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斷片이 되어 여기서는 類似한 형태가 있다는 점을 參考로 例示해 둘 뿐이다。

이들을 雲文으로 보는 根據를 밝히기 위하여 高句麗 古墳壁畵에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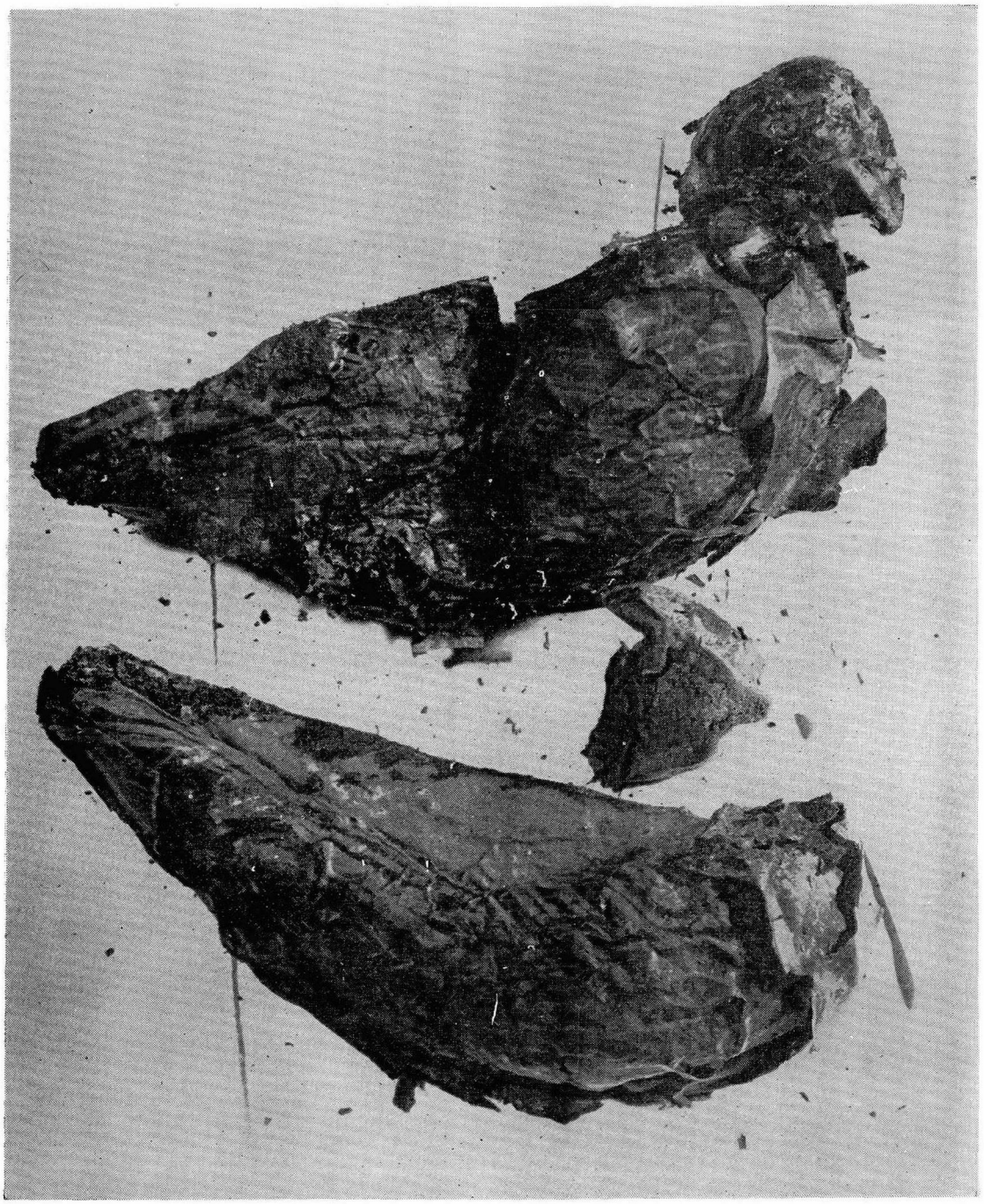

圖 1. 鳥 形 杯 雲 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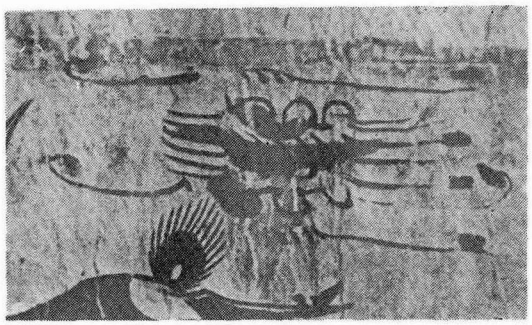

圖 5. 天王地神塚 雲紋

圖 2. 天 馬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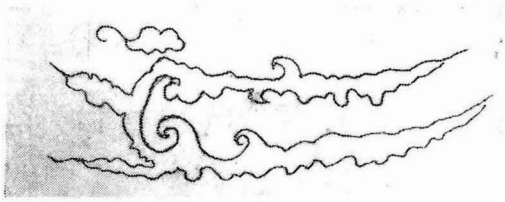

圖 6. 天王地神塚 雲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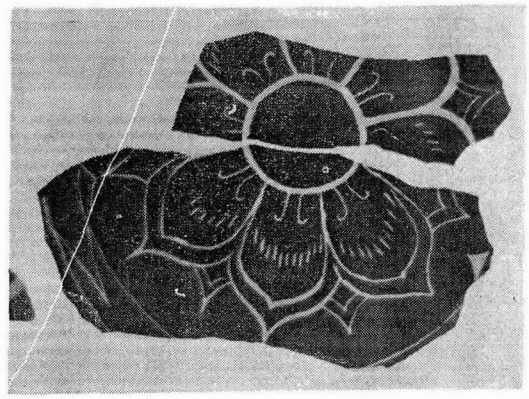

圖 3. 漆器彩畵（金鈴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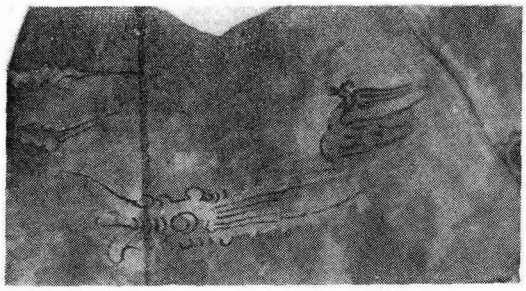

圖 7. 舞踊塚 雲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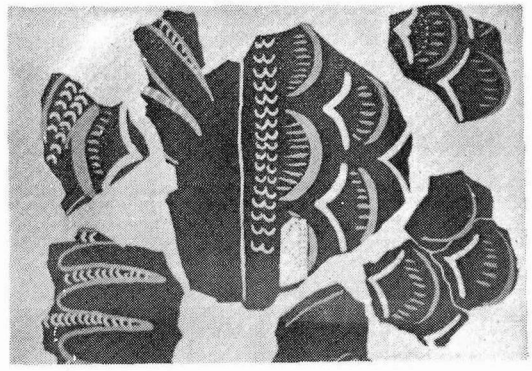

圖 4. 漆器彩畵（金鈴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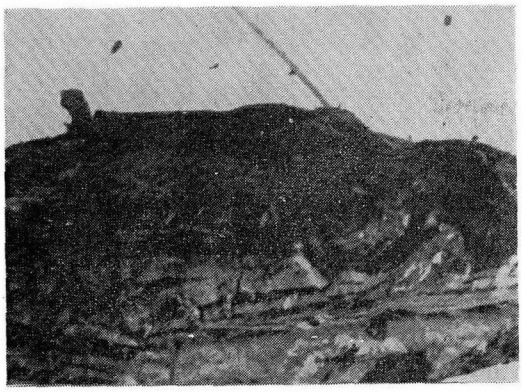

圖 11. 鳥形杯 瑞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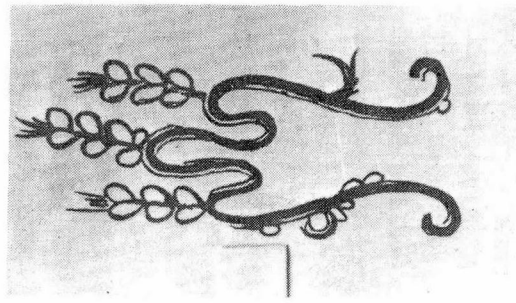

圖 8. 藥水里古墳 雲紋

圖 12. 彩畵板 瑞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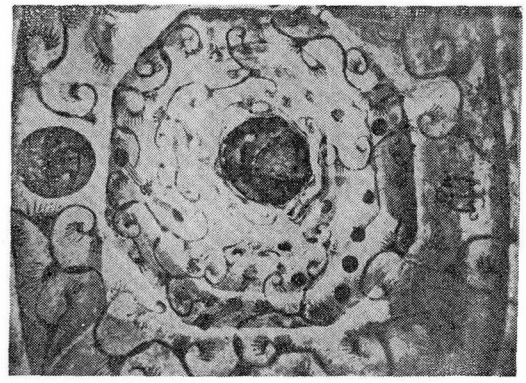

圖 9. 角抵塚 主室天井 雲紋

圖 13. 舞踊塚 主室 朱雀圖

圖 10. 三室塚 雲紋

나는 雲文의 형식을 注目하고자 한다。 이 雲文과 가장 類似한 형식의 雲文을 天王地神塚 (圖 五·六) 舞踊塚(圖 七) 藥水里 古墳(圖 八)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 한쪽에 자루같은 형태가 있고 그 反對 쪽에 여러 가닥 가지가 나붓기고 있다。 이 三者는 각기 細部樣式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같은 基本形式을 基盤으로 하였고 新羅의 一者도 이러한 形式에서의 變形이라고 생각된다。

筆者는 天馬圖 四隅의 雲文에 대하여 일찌기 一種의 雲文같기도 하나 이것이 雲文이라는 判定을 곧 내리지않고 더욱 면밀한 考察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 後 鳥形杯의 腹部에서 이와 類似한 紋樣이 나타났고 그 形式은 前記 高句麗 古墳에 그려진 雲文과 매우 類似함으로 鳥形杯나 天馬圖의 雲文과 類似한 紋樣은 高句麗 古墳의 雲文과의 形式的인 연관을 들어 雲文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그 樣式的 源流를 高句麗 古墳壁畵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이와 類似한 手法의 壁畵를 通溝의 角抵塚 主室 천장에서 볼 수 있다。 (圖 九)천장에는 星宿圖가 있고 東西 兩方에는 두꺼비와 三足烏를 圓內에 그려 月象과 日象을 표시하고 間地 全面에는 끝에 縱線이 붙은 蔓草文으로 채웠다。③ 筆者는 이것을 極度로 紋樣化된 雲文으로 보고자 한다。 角抵塚에는 따로 壁面에 古式의 雲文이 있으나 이러한 形式의 雲文은 舞踊塚 主室 천장에도 있고 또 많은 高句麗의 壁畵古墳 천장에는 다른 紋樣과 함께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려있는 점으로 보아 角抵塚 主室 천장에도 구름을 그림이 마땅하며 이와같이 壁畵 전체를 같은 紋樣으로 채우는 手法은 環文塚 이나 天王地神塚 또는 散蓮花塚 등에서의 紋樣配置에서도 볼 수 있으니 여기서도 그러한 手法을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 所謂「蔓狀唐草文」과 類似한 雲文은 安岳 第三號墳·安岳 第二號墳·安岳 第一號墳·三室塚에서도 볼 수 있고 (圖一〇) 이 形式은 江西三墓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 前揭한 高句麗 古墳壁畵는 그 築造年代를 五世紀初에서 中葉에 걸친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니 年代的으로도 慶州 第一五五號墳보다 앞서고 있다。

다음 새의 그림은 (圖一一) 머리에 損傷을 입어 자세한 形狀을 알 수 없으나 약간 남아 있는 筆線으로 보아 머리를 뒤로 젖힌 형태다。 가슴은 자연이 앞으로 내밀리고 날개는 활짝 폈으며 꼬리는 날카롭게 水平으로 뒤로 뻗고 그 위에 여러가닥으로 되어 비스듬히 위로 뻗혀 있다。 다리는 한 발을 땅에 대고 한 발은 앞으로 향해 들어 올리고 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내민 基本形、꼬리 外에 다른 털이 꼬리 위로 뻗고 한 발을 든 形式이 같은 古墳에서 發見된 彩畵板의 瑞鳥圖 (圖 一二)와 매우 類似함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몸이 날씬하고 筆線이 강경함도 兩者 同一하다。 이 瑞鳥圖는 筆者가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高句麗古墳壁畵에서 자주 나타나는 朱雀圖와 類似하며 더우기 舞踊塚 瑞鳥圖(圖 一三)나 通溝 第十七號墳 玄室의 朱雀圖(圖 一四) 그리고 날개와 꼬리는 물론 한 발을 앞으로 들고 있는 형상이 藥水里古墳의 朱雀圖(圖 一五) 또는 三室塚 朱雀圖(圖 一六)와 매우 類似하다。

三

漆器 가운데 高杯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크게 損傷을 입어 받침은 形狀의 一部를 남길 뿐이며 杯 또한 많은 損傷을 입었다。

杯 表面에는 받침이 붙었던 자리를 中心으로 全面에 걸쳐 蓮花를 그려 杯自體가 滿開한 仰蓮으로 만들고 口緣部 가까이에 波狀文을 그렸다。 波狀文은 上下에 線을 친 다음 그 사이에 二條의 平行 波狀文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上下의 空間에는 點을 하나씩 찍은 形式이 金冠塚出土 漆器 彩繪(圖 一七)와④ 매우 類似하다。 그 밑에 그린 蓮花는 破損으로 瓣數를 분명히 셀 수 없으나 十二瓣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받침과 接續하는 部位를 中心으로 瓣端이 둥근 蓮瓣을 굵은 線으로 그리고 瓣間을 中心으로 同數의 蓮瓣을 크게 그렸다。 이 蓮瓣의 瓣根에서는 꽃술이 한 두 줄 나 있으며 瓣端은 날카롭게 尖形을 그리고 瓣 周圍는 넓게 그렸다。 瓣內에는 윤곽을 따라 두 줄씩의 가는 半圓의 線을 치고 그 밑에 여러줄 縱線을 쳤다。 이 蓮瓣 사이에는 다시 尖頭의 曲三角形 蓮瓣이 쳐 있어 全體가 三重瓣을 이루고 있다。 (圖一八)

그림으로 된 古新羅時代의 蓮花는 일찌기 金冠塚과 金鈴塚에서 發見된 漆器에 그린 蓮花가 있었고 (圖一九·二〇) 榮州 順興의 古墳壁畵의 蓮花가 있을 뿐이다。 (圖二一)이들 蓮花를 보면 金冠塚 出土 漆器의 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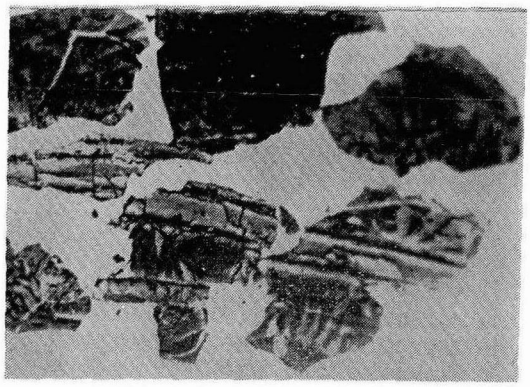

圖 17. 漆 器 彩 繪 (金 冠 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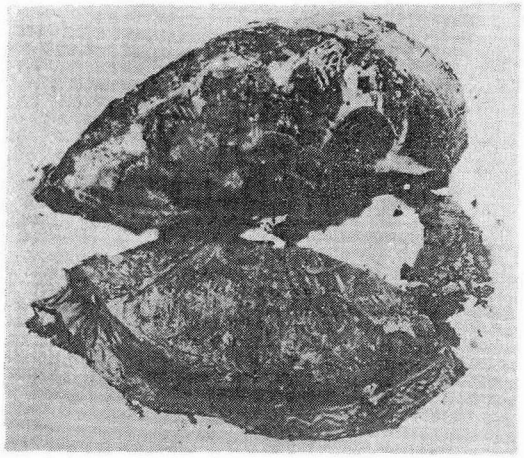

圖 18. 漆 器 高 杯 蓮 花 (慶州155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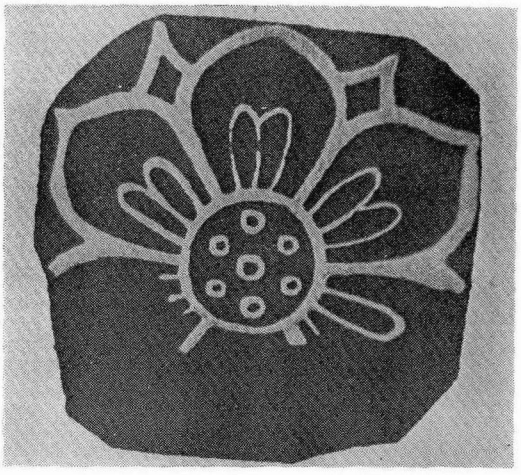

圖 19 漆 器 蓮 花 (金 冠 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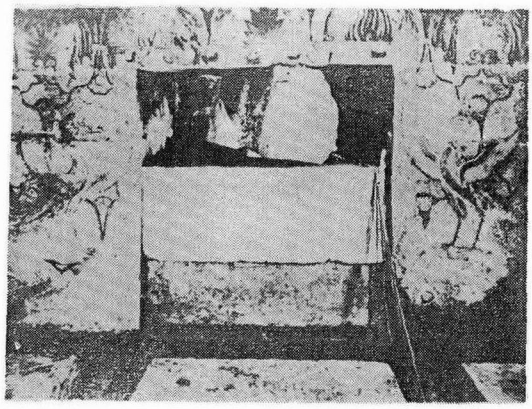

圖 14. 通溝 第17號 墳 朱 雀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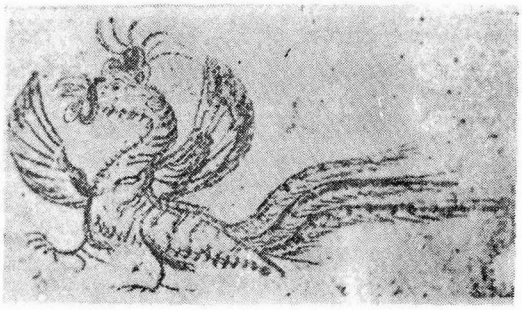

圖 15. 藥 水 里 古 墳 朱 雀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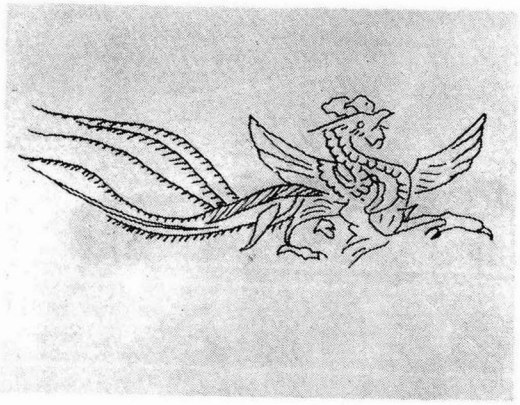

圖 16. 三 室 塚 朱 雀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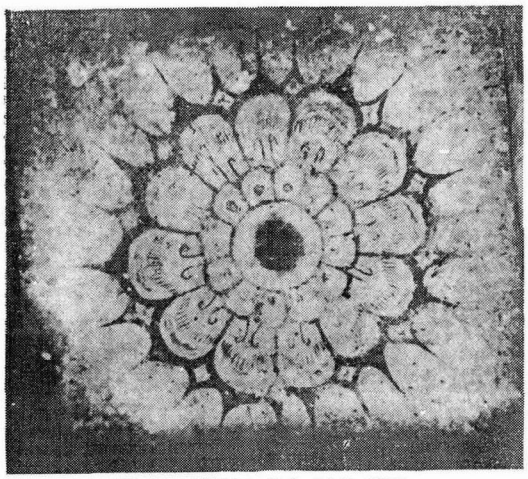

圖 23. 雙盜塚 前室 天井 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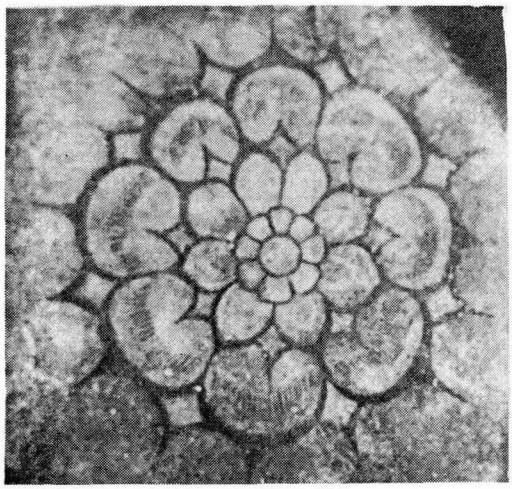

圖 24. 雙盜塚 後室 天井 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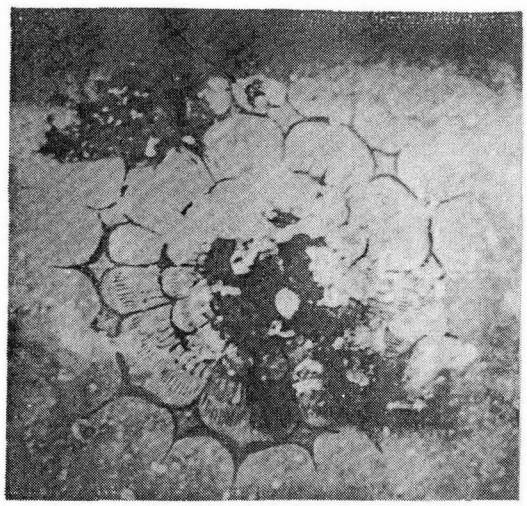

圖 25. 肝城里 蓮花塚 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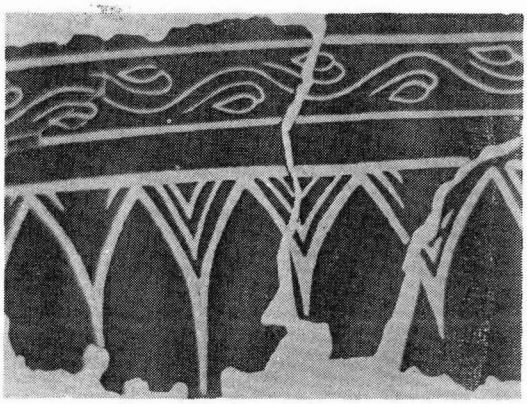

圖 20. 漆器 蓮花(金冠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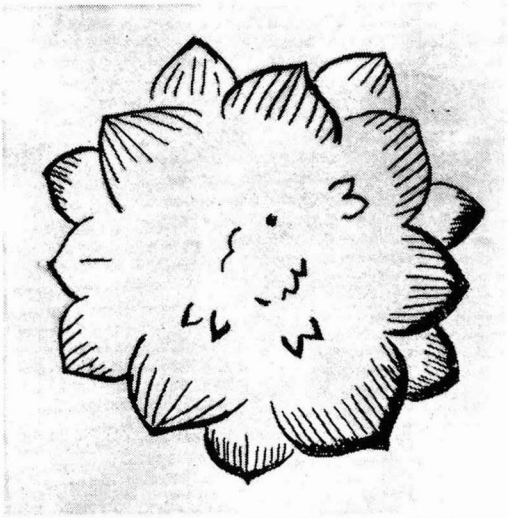

圖 21. 榮州 順興古墳壁畵 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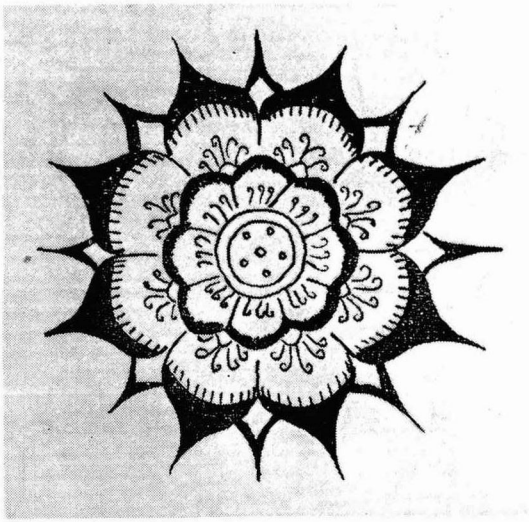

圖 22. 三室塚 蓮花

花는 六葉 重瓣이고 子房에는 六顆의 蓮子가 있으며 瓣根에서 두 줄 긴 楕圓을 그려 꽃술을 나타내었다。瓣端은 針形은 아니나 제법 뾰죽하다。이에 대하여 金鈴塚 出土 漆器의 蓮花는 八瓣 重葉인데 子房에는 蓮子가 없고 瓣端 周邊은 두 줄로 그렸고 그 사이의 間葉도 두 줄로 그려、그 사이의 彩色은 없으나 瓣端 周邊을 넓게 그리는 形式과 같은 意圖라고 해석된다。瓣內에는 여러 줄 縱線이 쳐 있고 瓣根에는 두 줄 꽃술이 나 있다。榮州 順興 古墳의 蓮花는 七葉重瓣이며 瓣端 周邊은 굵게 칠하고 瓣內에는 여러 줄 縱線이 있고 瓣根 가까이에 ∧形을 雙으로 그려 꽃술을 나타내고 있다。

이 三者의 蓮花와 漆高杯의 蓮花를 綜合 通觀하면 서로 樣式上의 연관을 볼 수 있으니 四者가 모두 瓣端 周邊을 굵게 칠하고 있는 점은 共通된 形式이다。瓣根에 끝을 꼬부린 꽃술이 있음은 金鈴塚 蓮花와 같고 瓣속에 縱線을 그은 形式은 金鈴塚 蓮花나 順興蓮花와 같지만 金鈴塚蓮花에 더 가깝다。間葉을 굵은 줄로 그린 점은 金冠塚 蓮花와 같고 順興蓮花나 金冠塚蓮花 瓣根의 꽃술 表現 形式은 매우 類似하다。

이들 蓮花의 形式과 같은 形式의 蓮花를 高句麗 古墳壁畵에서 찾으면 三室塚(圖 二二)雙楹塚 前室 천장 蓮花(圖 二三) 同 後室 천장 蓮花(圖 二四) 肝城里 蓮花塚 蓮花(圖 二五) 등을 들 수 있다。三室塚 蓮花는 瓣端이 넓고 重葉의 蓮瓣 안에 모두 여러줄 꽃술이 있다。이에 대하여 雙楹塚 前室 천장의 蓮花와 肝城里 蓮花塚蓮花는 子房 周圍의 小蓮瓣、瓣內의 여러줄 縱線、瓣根의 꽃술、瓣外周에 붙어 있는 굵은 間葉 등 가장 漆器 蓮花에 가까우나 雙楹塚 前室의 蓮花는 瓣端이 針形이 된 점과 子房周圍의 蓮瓣속에 點이 하나씩 있는 점이 다를뿐 瓣端 가까이 瓣의 윤곽선을 따라서 그어진 半圓形의 橫線이 있는 점까지 全혀 同一한 形式이다。蓮花를 그린 以上의 高句麗 古墳의 築造年代 또한 五世紀 前半임을 생각할 때 百濟의 陵山里 古墳 蓮花나 武寧王陵出土 王妃 托盞의 蓮花와 한가지 이 漆高杯의 蓮花、金冠塚 또는 金鈴塚出土의 漆器에 그린 蓮花들이 高句麗 蓮花의 形式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四

慶州第一五五號墳에서는 以上의 漆器와 합계 三個分의 대접이 發見되었다。그中 二個는 겹쳐서 유착된 채로 發見되었고 하나는 따로 發見되었으나 大破되었다。이 대접들 表面에는 各其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狀態가 좋은 것은 두 개 겹쳐 있는 것 中의 밖의 것이지만 다른 그릇들에도 같은 그림을 그렸으리라는 점을 一部에 남아있는 그림의 形態로 미루어 알 수 있다。(圖 二六)여기 그린 그림은 三種인데 하나는 口緣部에 그린 紋樣帶이고、하나는 側面에 크게 그린 三角形 火焰紋樣이고、하나는 이 三角形으로 해서 생기는 上部 空間에 그린 瑞鳥의 그림이다。

口緣部의 紋樣帶는 雙線 사이에 두줄 平行波狀文이 있고 그로 해서 생기는 上下의 空間에 點 하나씩을 찍었다。이 紋樣은 前記 漆高杯 口緣部에 있는 紋樣帶와 全然 同一하다。

이 紋樣帶와 밑의 얕은 굽과의 空間 即 側面에 그린 三角形 火焰紋樣은 굽을 底邊으로 二條의 線으로 三角形을 만든 다음 그 안에는 굵은 點 周圍에 小點을 찍은 裝飾文이 있고 밖으로는 윤곽을 따라 C字 倒置形 火焰文을 돌렸다。이러한 形式의 火焰文은 北魏 以來의 中國佛像에서 無數히 使用하고 있는데 太安三年銘石造佛坐像(四五七)(圖 二七)、延興五年銘金銅佛坐像(四七五)(圖 二八) 등은 그 중에서도 高古한 例라고 하겠다。또 이와 同形의 紋樣은 高句麗 古墳壁畵의 裝飾紋樣으로서도 盛히 利用하고 있음은 兩國 사이에 밀접한 文化的 交流가 있었음을 直感할 수 있다。高句麗 古墳壁畵에 나타나는 火焰紋裝飾은 대체로 두가지 形式으로 나타난다。하나는 雙楹塚後室 北壁 主人公 夫婦가 앉아 있는 집 보위 中央에 三角形의 寫實的 火焰紋(圖 二九)、安岳第二號墳에도 主人公이 앉아 있는 집 보위에 같은 火焰紋樣(圖 三〇)、舞踊塚 主室의 火焰紋(圖 三一) 등 비교적 간단한 形式이 하나이오、또 하나는 舞踊塚과(圖 三二)、角抵塚의 主室(圖 三三)、龕神塚 前室(圖 三四) 등의 보위에 그린 뚜렷이 三角形을 이루는 C字 倒置形을 이루는 火焰紋樣 등이다。高句麗 古墳壁畵에서는 이같이 寫實的인 火焰으로 表現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뜻으로 그린 이와 類似한 裝飾紋樣이 상당히 많다。以上이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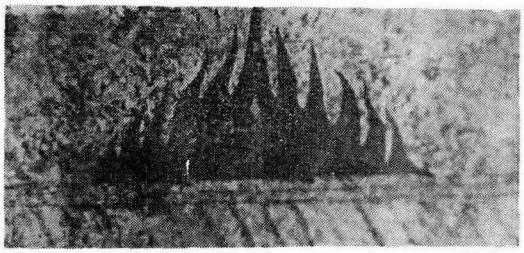

圖 29. 雙 盌 塚 火 焰 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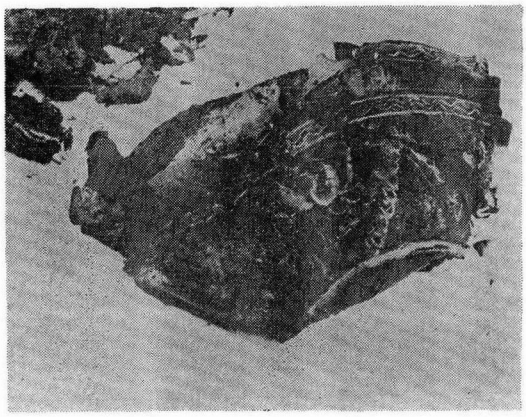

圖 26. 漆 사 발 (慶州 '55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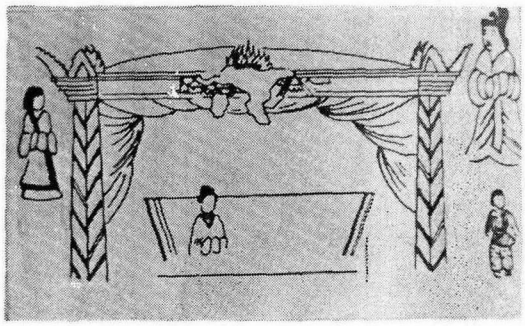

圖 30. 安 岳 2 號 墳 火 焰 紋

圖 27. 太安三年銘 石造佛坐像
(北 魏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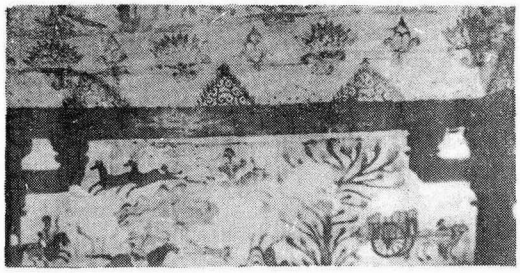

圖 31. 舞 踊 塚 主 室 火 焰 紋

圖 28. 延興五年銘 金銅佛立像
(北 魏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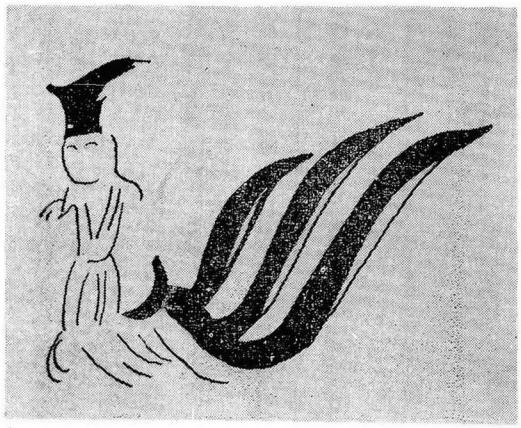

圖 35. 安岳 第1號墳 怪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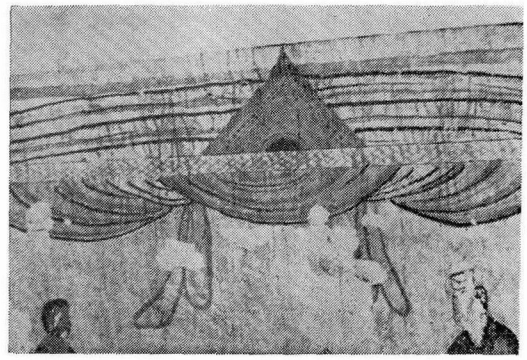

圖 32. 舞踊塚主室 三角火焰장식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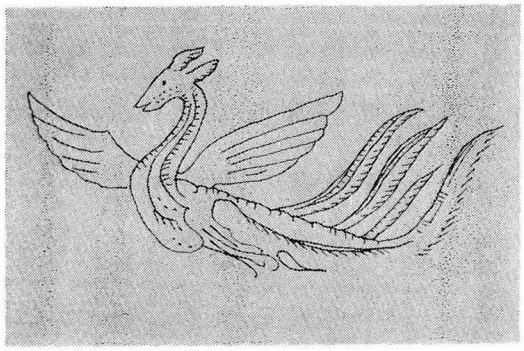

圖 36. 天王地神塚 怪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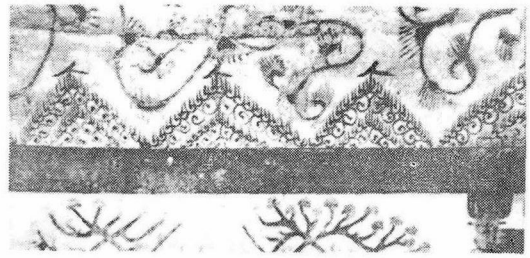

圖 33. 角抵塚主室 三角火焰裝飾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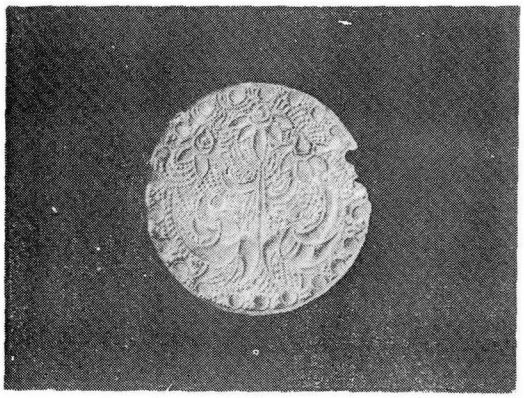

圖 37. 皇龍寺塔址發見 花樹對禽紋銀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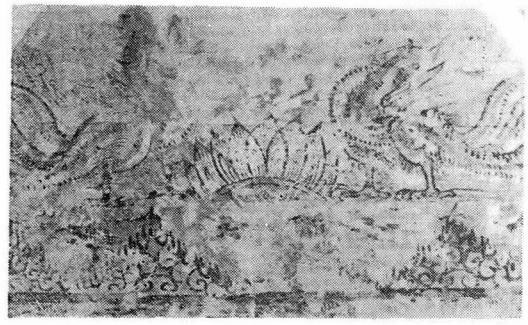

圖 34. 龕神塚前室 三角火焰裝飾紋

句麗 古墳壁畵에서 볼 수 있는 三角形 火焰狀裝飾 紋樣과 漆사발의 그것과를 比較하면 細部的인 差異 即 사발에서는 火焰 內部를 雙條 直線과 點紋으로 채운데 比해 壁畵에서는 같은 形式의 火焰文으로 채운 差異가 있을 뿐 서로 完全히 同一한 形式과 筆致에 의한 것이다.

이 漆사발에 그린 火焰裝飾文이 古新羅時代 그림에서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古新羅時代 畵蹟이 매우 드문 가운데서도 筆者는 앞서 몇 가지 例를 들어 高句麗 美術과의 연관과 그 영향한 바를 考察하였으나 이 三角形 火焰狀 裝飾紋樣에 이르러 그것이 高句麗 古墳壁畵에 나타나는 同樣의 그림에서 緣由한 것임에 더욱 분명해졌고 前揭 例示한 이러한 火焰狀 裝飾文이 있는 古墳의 築造年代가 모두 五世紀 以前이고 舞踊塚·角抵塚같이 四世紀 末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時間的으로 보아도 樣式의 淵源이 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이 三角形 火焰狀 裂飾紋樣으로 해서 생기는 上部空間에 그린 瑞鳥는 그 形態가 같은 古墳에서 出土된 彩畵板의 瑞鳥圖와 基本的으로 同一하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크게 앞으로 내밀어 S字形이 되었고 두 날개는 활짝 폈으며 꼬리는 두 가닥으로 갈라졌다. 이러한 形式이 高句麗 古墳壁畵에 그린 여러가지의 瑞鳥圖에서 緣由하였으리라는 推定을 앞서 考察한 바 있음으로 여기서 다시 되풀이 할 必要는 없겠으나 다만 이 瑞鳥圖에서 注目되는 점은 두 다리가 寫實的으로 表現되지 않고 작은 날개모양이 된 점이다. 이러한 表現이 一見 매우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表現은 다른 例에서도 볼 수 있는 形式이다. 사실 이 瑞鳥는 전체적인 形狀으로 보아 空中을 날아 前進하는 모습이고 따라서 다리가 작은 날개 모양 끝이 뾰죽하게 뒤로 뻗었고 꼬리도 뒤로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이 다리를 寫實的으로 表現하지 아니하는 形式은 安岳第一號墳의 怪獸圖(圖 三五) 또는 天王地神塚 등의 怪獸(圖 三六)에서도 볼 수 있고 가까이는 慶州 皇龍寺址 舍利孔에서 發見된 花樹對禽紋 銀板에서도 볼 수 있다.(圖 三七) 이 銀板의 새는 날개나 다리의 形狀으로 보아 空中을 날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발의 瑞鳥圖와 같은 動作의 순간을 그린 것이라고 하겠다.

兩者의 形態는 漆畵가 더 高句麗 瑞鳥圖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많은 共通性과 類似性을 보여주고 있다.

五

以上 慶州 第一五五號墳에서 發見된 漆器에 그려진 一連의 漆畵를 보고 樣式上의 特徵과 그 源流를 考察한 結果 일찌기 高句麗 美術이 百濟나 新羅에 끼친 많은 영향을 考察하여 온 바와 같이 이 漆畵에서도 高句麗 美術의 영향이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中에는 漆사발의 三角形火焰裝飾이나 用途不明의 漆器에 그린 瑞鳥圖와 같이 高句麗의 영향을 强하게 받은 紋樣이 처음 나타났고 漆高杯의 蓮花文은 이제까지 發見된 百濟나 新羅의 어느 紋樣에서 보다 더두렷한 高句麗의 영향을 볼 수 있다.

慶州第一五五號墳에서 同時에 發見된 天馬圖·騎馬人物圖·瑞鳥圖들이 모두 高句麗의 영향을 받고 있듯이 이들이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더욱 뚜렷하다고 하겠다.

註

①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圖版(朝鮮總督府、一九三二) 第 九五圖

② 前揭書 第九七圖

③ 通溝(日滿文化協會、一九四〇) 下卷에서는 間地의 紋樣을 「蔓狀唐草文」이라고 하였다.

④ 慶州金冠塚と 其遺寶(朝鮮古蹟研究會、一九二四) 圖版 上冊 圖版 第 二九